

[제주잠녀] 그 옛날 '원'의 명성은 간데 없고...

발로 달는 잠녀의 삶-한경면 금등리

등록 : 2006년 12월 03일 (일) 15:01:52
최종수정 : 2006년 12월 03일 (일) 15:01:5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마을 어귀에서 옛날 중국 '초'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등'나라에서 유래했다는 마을 이름을 먼저 보았던 탓일까, 고즈넉히 작은 마을 금등리의 바다는 유난히 더 추워 보였다.

그다지 넓지 않은 바다발을 6~7년 전부터 6군데나 되는 양식장과 나눠 쓰면서 바다는 이전의 풍족함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굳이 바닷속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도 바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멜'바다로 유명했던 '원'의 명성, 지금은...

인근 두모나 판포와 달리 금등의 바다는 '머홀'바다다. 잔 자갈로 이뤄진 탓에 예전부터도 알이 굵은 소라나 전복을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물건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금등의 소라 생산량은 522kg으로 한림 수협관내 어촌계 중 가장 적다. 톳도 34kg(상품 기준)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하루 1~2시간씩 5일 동안 일해 벌어들인 돈은 1인당 2만원 남짓. 한창때 100만원을 호가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올해는 아예 톳 작업을 포기할 정도가 됐다.

천초 역시 올해는 바다발 어디를 뒤져봐도 눈에 띄지 않고 재작년부터는 힘들여 뿌려놓은 전복 종패가 꺾데기만 남은 채 전부 패사해 버렸다.

날이 선 바닷바람을 뚫고 찾아간 잠녀 탈의실에는 자그마한 전복 무덤이 있었다. 손가락 두 마디 만한 어린 전복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리라 생각했던 어른 주먹만한 전복까지 꺾데기만 남아있다.

눈에 안 띄면 어디 먹이를 찾아 이동을 했다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잠녀들이 물에 들어가 전복 꺾데기를 거둬들이는 것이 일이 됐다.

제주에서는 넓고 물건 등이 풍부하기로 첫 손 꼽히던 '개창원'은 이제 이름만 남았다.

금등리 초대 어촌계장인 이창화 할아버지(81)는 "예전에는 멜 잡는 모습도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톳이 나 감태, 뭉 하나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금등에서는 최고령 잠녀로, 아직도 물질을 한다는 부인 고정옥 할머니(80)도 "하늬바람이 불 때 개창원에 가서 몸을 베어두면 조류를 타고 물으로 올라오곤 했다"며 "그걸 팔아 부인회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물에 드는 것이 흥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의 바다 대신 미래의 바다를 꿈꾸다

1978년 법인 어촌계가 비법인 어촌계로 바뀌면서 금등리 어촌계가 생겨났다. 그전까지는 판등어촌계로 판포리와 금등리의 바다 구분이 모호했다.

한 바다를 두 마을이 관리하면서 크지는 않았지만 다툼이 잦았고 수협 등까지 나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바다를 나눴다. 그렇게 지켜왔던 바다지만 지금은 ‘협동어장’애기 등이 무색해질 정도가 됐다.

이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배를 탔지만 지금은 ‘풍중’이라며 소탈하게 웃었다. 고향의 부인이 바다에 나가면 기다렸다가 물으로 올라오는 것도 도와주는 ‘잠수 서방’이란다.

그래서인지 더 마을과 바다 일에 대한 생각만큼은 뚜렷하다.

“양식장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피해도 피해 나름”이라며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보다는 이제는 ‘양식장 영향으로 바다가 어떻게 변했으니 그 것에 맞는 바다발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는 보이지 않던 미역이 올해는 제주시 쪽에서도 와서 잘라갈 정도로 많이 났다”며 “돈이 되는 것들은 사실 다 사라졌지만 그 와중에도 잘 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성과없는 종패사업만 계속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평생 바다와 살아온 노 부부의 얼굴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느낌 그대로 밝았다. 일제시대 학도병으로, 한국전쟁 때는 징집을 당해 두차례나 군복무를 했다는 할아버지도, 남편을 군대에 보낼 때까지 시 생활을 했다는 할머니도 고향인 바다에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바다는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발일을 하느라 바다는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다. 해안도로가 나있거나 선착장 등이 있는 다른 바다와 달리 금등리 바다의 일부는 양식장들에 내어줬다.

그래도 발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면 가만히 만져주는 것도 바다요, 자식 이야기를 빼고 황혼의 노부부를 이어주는 화두도 아직은 바다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경면 판포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